

서울YWCA

2025 11+12
Vol.639

현장 속으로

서울시민 성차별 이슈
인식 설문조사 결과

Y 이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역사와
현재 이해하기



현장 속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미술로 읽는 성경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룯



돌봄을
다시 생각한다



돌봄에 대하여

“결혼한 여자의 사랑은 왜 항상 자기파괴적인가.
국가가 복지로 책임졌어야 할 돌봄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모든 가족구성원이 함께 나뉘어야 할 책임은 사랑이라 불리며 여자에게 전가된다.
그렇게 여자의 사랑은 이름을 잃고 주인을 살해한다.
그 과정이 너무 가혹할 때는 운명이라고도 한다.”
- 신성아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 중에서

인간은 대개 태어날 때부터 타인에게 돌봄을 받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타인을 돌보는 주체로 살아간다.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돌봄이란 삶을 지탱하는 필연적이고 신성한 행위다.
그런데 무엇이 이 신성한 돌봄을 비극으로 몰아넣는가.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의 저자 신성아는 돌봄의 의무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시켜 약자에게 전가하는 가부장제의 잔해들을 소상히 드러낸다.

소아백혈병을 앓는 딸을 간병하면서 그가 목도한 돌봄의 현장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병동 내 간병인들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이들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염가에 제공한다. 하지만 이십만 원가량의 비용을 매일 부담할 수 있는 가족이 과연 몇이나 될까.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다면 환자의 보호자 중 한 사람은 전업을 포기하고 간병의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한다. 여기서 누가 돌봄의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가. 바로 여성과 노인이다.
이렇듯 돌봄은 약자를 위해 또 다른 약자에게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비극이다. 사랑과 모성을 강요하며 노인과 여성에게 돌봄의 의무를 떠맡기는 이 구태의연한 구조가 돌봄의 신성을 박탈한다.

하지만 이토록 무망한 현실 앞에서도 신성아의 서술은 꺾일 줄을 모른다.
그는 냉철한 지성과 수려한 문장들로 돌봄에 선행하는 사랑의 무결함을 증명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열렬히 투쟁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고.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해야만 한다고. 돌봄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과 그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한다면, 돌봄은 정치의 긴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한참 동안 그의 촉구에 고개를 주억이며 읽었다. 이 언설만이 돌봄 지옥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지 않을까 하고.

서울YWCA

2025년 11·12월호 639호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1월 공동기도

빛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촛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소서. 주님, 오셔서 이곳에 머물러 주소서. 간절한 소망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12월 공동기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한 가운데로 찾아오신 성육신의 신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정신, 삶, 지향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소서. 아멘.

- 2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
- 4 **돌봄의 영성과 YWCA 운동 ④**
돌봄을 다시 생각한다
- 6 **Y 이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복잡한 역사와 현재 이해하기
- 8 **현장 속으로**
서울시민 성차별 이슈 인식 설문조사 결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12 **미술로 읽는 성경**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
- 14 **서울Y 소식**
9·10월 뉴스
11·12월 행사 안내
11·12월 캘린더
- 20 **Y 샐터**
「여성신학 아카데미」 참가 후기
- 22 **후원 소식**
- 25 **미디어 모니터링**
짧아진 영상, 깊어진 블랙홀
- 26 **라운드 테이블**
세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둘 모이면
- 27 **알림터**
- 30 **환경 에세이**
뜨거워지는 지구, 빙하소실의 두려움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마벨 R. 겐소, 서울Y 조직을 도운 선교사

「서울YWCA」 2025년 11·12월호 통권 제639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5년 11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최 봉 편집위원장 황성연 편집위원 김유애 나소영 이재숙 조희수 최민희 최혜란 편집 강민아 성지희 김현숙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이희도 인문 교양서 출판편집자. 읽고 싶은 글을 매만지고 물성을 아름답게 입혀 세상에 내놓는 일을 합니다.
약자, 소수자, 돌봄, 전쟁,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에 긴절한 텍스트를 매일 찾아 읽고 씁니다. @trauer_h

돌봄을 다시 생각한다

돌봄은 여성이나 취약한 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영역으로 모두의 정치이다



송진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목사

영화 <플랜75>가 던지는 질문

얼마 전 영화 <플랜75>를 보았습니다. 영화는 한 청년이 노인을 살해하면서 시작합니다. “노인 인구 과잉은 일본 경제를 말아먹고, 그 피해는 젊은 세대가 당하고 있다. 일본은 예로부터 국가를 위해 개인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범인의 독백 이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플랜75”는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 대안이다.” 호텔 룸메이트로 일하며 홀로 사는 여성 노인 가쿠타니 미치, ‘플랜75’를 홍보하는 시청 직원 오카베 히로무이, ‘플랜75’의 콜센터 직원 나리미야 요코, 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유품을 수습하는 필리핀 여성 마리아가 영화를 끌어갑니다.

미치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실직자가 되고, 집에는 철거 예정 공문이 붙었습니다. 그즈음 친구의 고독사를 목격하면서,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플랜75’를 신청합니다. 고통 없는 죽음과 무료 장례 서비스, 거액의 지원금으로 남은 시간을 누리고, 매일 친절함 상담이 진행됩니다. 죽음으로의 과정은 안전하고 따뜻해 보입니다. 요코와 전화상담을 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미치와 달리 히로무이는 거동이 불편하고 신청을 머뭇거리는 노인들에게 ‘플랜75’를 설득합니다. 그러다 시신이 폐기물 처리 시설로 가는 것을 알게 되고, 미치와 매일 대화를 하던 요코는 그들도 나처럼 뜨거운 삶을 살았던 젊은이였음을 경험합니다. 한편 마리아는 딸을 살리기 위해 타인의 죽음을 무감각하게 수습합니다. 이들은 점차 ‘플랜75’가 빚어낸 현실에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합니다. 경제적 위기, 사회적 고립, 적막으로 가득한 외로움과 비극적 죽음, 돌봄 시스템의 부재를 정부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거합니다.

영화는 자발적 선택으로 보이는 ‘플랜75’가 실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압력이나 폭력임을 고발하고, 차갑고 조용한 시선으로 이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시대 인간의 존엄이 어디에 있는가?



노동할 수 있는 건강한 인간만이 ‘정상’?

돌봄은 인간에 대한 이해, 이 사회에서 여성 존재와 여성 일에 대한 불평등, 그리고 사적 영역으로 치환할 수 없는 공동체의 부정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롭고 번성한 시대를 살면서 가장 황폐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코로나 팬데믹, 고령화 사회,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마주하며 우리는 돌봄에 대해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바퀴 아래에서 노동할 수 있는 건강한 인간을 ‘정상’이라는 범주에 두고, 취약한 이들에게 불편한 시혜와 차별적 위치를 요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 혹은 사랑의 이름으로 여성의 노동을 보이지 않는 값없는 노동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돌봄 사회, 평등하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돌봄을 받는 이와
주는 이의 관계는

불평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돌봄은

사적 관계나

개인의 능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돌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또 다른 이름의

풍요와 변영일 것입니다.

누구나 필요한 ‘돌보는 공동체’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부딪히고 공감해야 비로소 한 인간을 압니다. 너도 나와 같은 소중한 존재이고, 나처럼 고민도 있고,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는 것, 그래서 장애인, 어린이, 노인만이 돌봄의 대상자가 아니라, 소위 너무나 멀쩡한 이들도 마음이 아프고 지쳐 쓰러지는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속풀이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을 가족이 필요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누구나 함께하고, 서로 주고 받으며, 평시나 비상시나 관계없이 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선별이 아니라 보편적이어야 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돌봄을 받는 이와 주는 이의 관계는 불평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돌봄은 사적 관계나 개인의 능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돌보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돌보는 공동체’는 상호지원, 공공 공간, 공유 자원, 지역 민주주의가 핵심입니다. 상호지원은 돌봄을 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돌볼 권리를 통해 인간의 존엄이 이루어져야 하고, 서로 돌보기 위한 공공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지원 등 물리적 자원을 넘어 정보 공유 같은 무형의 자원과 타인을 신뢰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적 자원도 있어야 하지요. 그것은 개인을 넘어 가족과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일이고, 개인과 지자체 사이를 서울YWCA같이 뜻있고 께어있는 기관의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국가는 ‘인간의 존엄한 삶’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화되고 분절화된 황폐한 시대,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와 정책을 고안하고, 우리의 관계를 재구성한다면, 진정한 돌봄과 민주적인 삶을 꿈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돌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또 다른 이름의 풍요와 변영일 것입니다.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복잡한 역사와 현재 이해하기

서울YWCA는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심각한 인명 피해와 군사적 폭력 상황을 마주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슈를 다각도로 학습하고 성찰하기 위한 긴급강좌를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역사적·신앙적·윤리적 관점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이 사안을 단편적인 '분쟁'이 아니라,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세계 시민적 이슈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 복합적 배경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강 팔레스타인-이스라엘, 100년의 역사와 갈등구조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에는 6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자의 상당수는 여성과 어린이였다. 이 분쟁은 최근 몇 년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오랜 역사 속에 있다. 역사적·종교적·정치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이 분쟁의 기원은 무엇일까? 고대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10세기경 형성되었으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흩어짐)의 역사를 시작했다. 이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 국가는 사라졌고, 로마는 이 지역을 '팔레스타나'라 명명하며 유대인을 추방했다. 중세 시기 팔레스타인은 오랜 세월 이슬람 제국의 통치 아래 아랍인, 기독교인, 유대인이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었다.

19세기 말, 유럽의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 속에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국가를 꿈꾸는 시온주의(Zionism) 운동을 시작했다. 시온주의는 '약속의 땅'으로 여겨진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치적 운동이었으며, 이는 영국 등 제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추진되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이미 약 100만 명의 아랍인이 살고 있었지만, 1917년 영국의 벨푸어 선언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영국의 위임통치 아래 대규모 유대인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원주민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 되었다. 1947년 유엔이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승인하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다. 그 결과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점령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볼 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단순히 종교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만들어낸 현대사의 구조적 비극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강 팔레스타인 역사와 신앙, 그리고 평화에 대한 성찰

최형묵 천안살림교회 목사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같을까? 한국교회 안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성경에 등장하는 선민 이스라엘과 그 대적의 싸움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편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오해는 성서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 맥락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종교적 대립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다시 이해되어야 한다. 그 핵심에는 유럽의 반유대주의 속에서 등장한 시온주의(Zionism)가 있다. 시온주의는 처음에는 유대인의 고향을 되찾으려는 민족주의 운동이었으나, 이후 유럽 사회의 유대인 박해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동기를 지닌 강력한 이념으로 발전했다. 이 이념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정착 식민화와 점령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신학적 관점에서도 시온주의는 기독교 종말론과 천년왕국 사상과 결합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근대 기독교의 일부 해석은 유대인의 '귀환'을 신학적으로 승인하며 제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렸고, 이후 성서 고고학과 주류 신학 담론은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역사학파'와 레반트 고고학 연구는 성서 서사와 실제 고고학적 자료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며, 성서를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닌 해방과 정의, 평화의 보편적 윤리로 읽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과 점령을 정당화하는 해석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성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인간적 책임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다시 읽어야 한다. 평화적 공존의 길은 팔레스타인 민중의 생존권과 자결권이 보장되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며, 우리의 관심과 연대는 이 방향에 집중되어야 한다.



3강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민사회의 역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윤희 고양YMCA 사무총장

팔레스타인의 사망자 수는 그들의 고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지난 70여년간 이어진 점령과 통제, 일상적인 두려움과 빈곤의 현실이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수자원을 장악하고, 7~9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분리장벽을 세워 사람들의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Check Point)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매일같이 통행을 제한당하고 신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팔레스타인 주민의 일상은 구조적인 억압 속에 놓여 있지만, 이러한 현실은 주류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와 뉴스 너머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에서는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 다양한 연대와 비폭력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불매, 투자철회, 제재를 촉구하는 BDS(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캠페인, 비폭력 평화운동으로서의 대안 성지순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을 조직하여 1인시위, 규탄집회, 대화모임, 강좌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양YMCA는 국제단체들과 협력하여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땅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국제 평화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작게라도 연대하는 것, 그것이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팔레스타인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그리고 기독교의 평화협력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신학적·신앙적 비전을 다시 성찰하는 일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구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향한 연대는 곧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것이다. ♪ 정리·김하은 국제운동팀 간사

서울시민이 바라본 성차별 인식 여전히 존재하지만, 변화의 의지를 품다

서울Y는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의 지원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인식조사를 진행했다(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이번 조사는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전통적 성역할 인식, 성평등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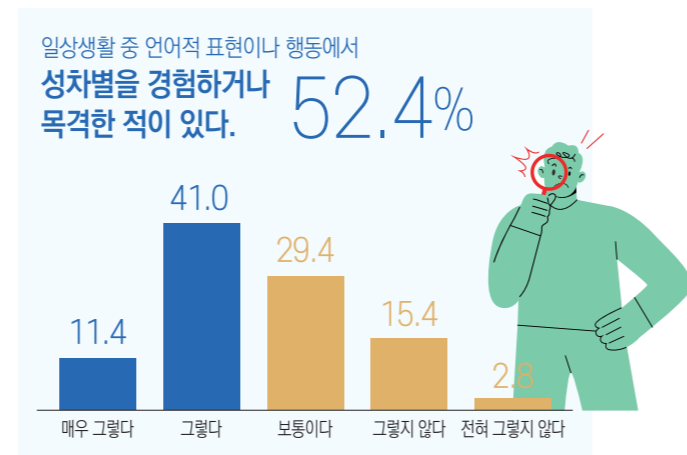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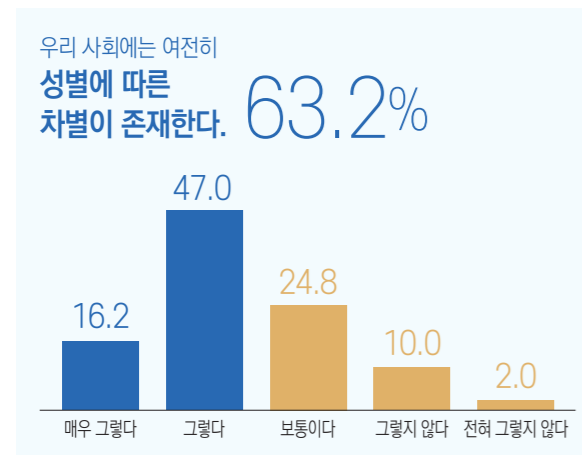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 완성되지 않은 성평등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63.2%로, 시민의 절반 이상이 성차별을 체감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25.2%에 그쳤고, 37.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인식과 제도의 성평등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불평등을 느끼는 시민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여성(46.0%)과 20대(51.2%)에서 ‘아직 성평등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성평등에 대한 시민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실제 체감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일상 속 차별의 그림자

“일상생활 중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2.4%였다. 여성의 경우 61.3%로, 남성(42.7%)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집안 일이나 육아·간병 등의 돌봄은 주로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0.4%, “성별에 따라 특정 직업이나 역할이 더 적합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69.8%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전통적 성역할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깊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표면적 제도 변화와 달리, 일상 속 언어·관습·돌봄 구조 속에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기대와 차별이 스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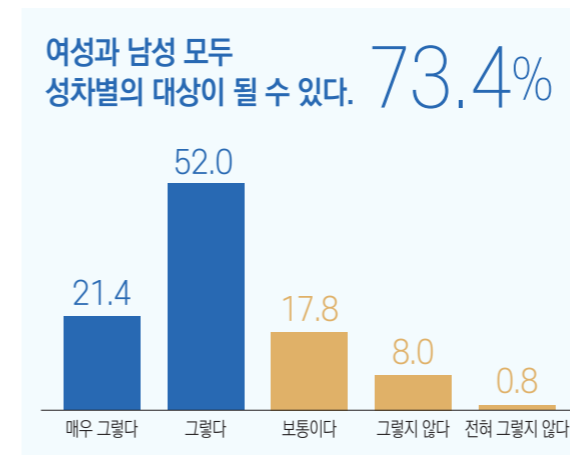


차별은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여성과 남성 모두 성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이 73.4%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시민 다수는 성차별을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가부장적 사회에 뿌리 내린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성평등을 실천하려는 의지

“나는 가정·직장·사회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려는 태도와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이 68.8%로, 시민 다수가 평등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평등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49.8%였다. 절반에 가까운 시민이 성평등을 사회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응답은 37.4%, ‘보통이다’가 46.6%로, 이 주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층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즉,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행동과 참여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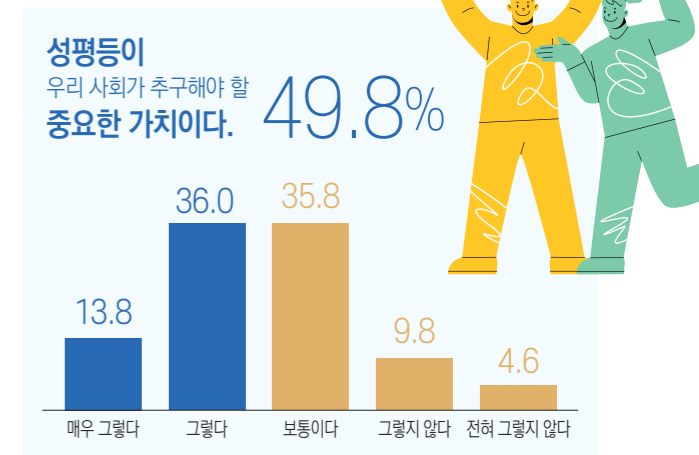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과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민의 인식 속에는 ‘차별의 지속’과 ‘평등의 지향’이 공존하고 있다. 시민 다수가 평등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어·돌봄·직업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차별적 구조가 남아 있다. 특히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60.4%)은 여전히 가장 뿌리 깊은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이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공론과 실천이 만들어낼 변화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이 평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길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평등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기보다 서로의 경험을 안전하게 이야기하고 경청할 수 있는 ‘안전한 공론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서울Y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 속 성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실천의 장을 넓혀갈 것이다. 차별 없는 언어, 공정한 돌봄, 평등한 관계가 일상이 되는 사회. 그 변화는 거대한 제도 이전에, 시민 한 사람의 인식과 대화에서 시작된다. ♡ 정리 박소영 여성운동팀 간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조부모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로

서울Y는 유한킴벌리와 함께 저출생 시대의 핵심 과제인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 돌봄사회’를 주제로

‘저출생 시대, 성평등 돌봄사회의 전환 - 가족과 일터의 해법’ 토론회를 10월 24일 서울Y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 상반기 진행된 「성평등 돌봄사회를 위한 가족과 일터의 전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출산율 제고나 인구 감소의 관점이 아닌 ‘성평등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 발표에 이어 신혼부부학교와 FGI 참여자인 신혼부부의 사례 나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성평등가족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청년 세대의 경험과 기업의 현실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을 함께 논의하며 성평등한 돌봄사회의 실현이야말로 저출생 문제의 근본 해법임을 확인했다. 정리·이기쁨 여성운동팀 간사

발표

“실질적 돌봄사회의 시스템 전환 급선무”

‘노키즈존’ 사회에서 아이와 함께 살기 : 가족의 현실과 문제
신경아 교수_한림대 사회학과

이번 연구는 신혼·예비신혼부부 258명 대상 설문과 신혼부부 학교 참여자 유자녀·무자녀 18커플(36명) 대상 초점집단인터뷰(FGI)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무자녀 부부에게서 ‘저출생의 덧’ 현상이 확연히 확인됐다. ‘저출생의 덧’은 인구학자 볼프강 울츠가 제시한 개념으로, 출산율 하락이 계속되는 사회에선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문화, 관행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이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임신·출산·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출산 후 경력단절과 임금 하락, 장시간 노동 등 구조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한 돌봄 구조 구축과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의무화, 노동시간 단축, 난임휴직 제도화, 남성 돌봄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

“중소기업은 제도 자체보다 경영진의 인식이 미치는 영향 커”

중소기업의 돌봄 지원 정책
이은아 교수_이화여대 여성학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15명의 심층 면접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육아휴직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업종별로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 추가 인건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업무지구나 빌딩 내 공동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 제도의 성과를 데이터로 구축해 경영진 교육과 중소기업 홍보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사례

“복지 가능 여부는 보육 계획에 달렸다”

모성폐널티를 넘어
김은지 신혼부부 여성

모성폐널티는 임신 준비부터 시작된다. 10명 내외의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며, 임신부터 출산과 복지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난임 치료로 인한 병원 방문과 시술 일정은 업무 조율에 부담을 주었고, 출산 후에도 육아휴직 사용과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 보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복지가 쉽지 않았다. 이에 유연근무제 정착, 중소기업 돌봄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지원의 실질적 보완이 요구된다.

“출산과 결혼은 분위기를 탄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는 아직도 위험한 도전일까?
김지용 신혼부부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으로서 돌봄 참여 과정에서 제도적·문화적 제약을 경험했다. 남자도 산후우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없어 곤란을 겪은 적도 있다. 엄마들 모임에 함께하기 어려워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다. 주변을 보니 출산과 결혼은 분위기를 탄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필수 요소다. 그만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아빠 대상 육아교육 확대, 대체근무자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토론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지원 절실”

중소기업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운영 사례
노강희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서울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아휴직 100% 보장, 승진 불이익 없는 복귀 제도, 정규직 대체인력 충원제도를 운영하며 돌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피드백이 CEO에게 직접 전달되어,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경영진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은 현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성에 맞춘 제도적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통합적 돌봄을 위한 사회적 기반 강화 추진”

정부의 일·생활 균형 정책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국

정부는 출산·돌봄 부담의 불평등과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돌봄·일·가정 양립 전반에 걸친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기저귀·분유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공공 돌봄시설의 야간 운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등이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대체인력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14장, 창세기 19장에 나온다. 두 사람의 행보를 따라가다 보면 조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를 위한 기도와 롯의 물질 중심주의적 선택과 파멸적 결과의 대비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극대화된다. 아브람이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내 사래와 식솔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롯도 그의 식솔과 함께 아브람과 동행한다. 그러는 사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축과 은, 금이 풍부해졌고, 롯 또한 아브람으로 인해 부의 축적을 누렸다. 그러다 그들이 벨엘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보니 서로의 소유가 많아져 두 사람의 목자들 간에 목초지를 놓고 다툼이 잦아지자 그 땅에서 함께 가축을 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아브람은 서로의 평화를 위해 롯과 헤어지기로 하고 롯에게 갈 장소를 정하도록 선택권을 주면서 “...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9)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조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브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때 롯은 주저 없이 물이 넉넉하여 목초지가 풍부하고, 여호와와의 동산 같고 잘사는 애굽 땅 같은 요단 지역을 택하고 소돔으로 가게 된다.

아브라함 vs 롯

아브람의 롯에 대한 애정은 소돔과 고모라가 주변 왕들에 의해 약탈당하고, 롯도 포로로 잡히고 그의 재산도 노략질 당한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가신들 318명

을 이끌고 롯과 그의 가족과 친족을 구하고 빼앗긴 재물까지 다시 다 찾아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아브람은 99세 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 그런데 당시 소돔 사람들은 악행이 심했고, 특히 성적 타락이 만연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창 18:18)이나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밝히신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여 용서를 간구했으나 의인 열 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유향과 불이 비 같이 쏟아져 멸망을 받게 된다.

그 전에 하나님은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천사들을 통해 롯에게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라 했으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고, 롯 또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으로 지체하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이끌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갈 것을 재촉한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된다.

존 마틴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주제로 한 작품 중에는 18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영국 화가 존 마틴(John Martin 1789-1854)의 1852년 작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라는 작품이 단연 돋보인다. 용광로가 불타듯 활활 타오르는 유향불로 인해 도시는 무너져 잿더미가 되어 가고, 하늘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존 마틴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
1852. 캔버스에 유채,
136.3 X 212.3cm.
영국 뉴캐슬 라이트아트갤러리

에서는 번개와 함께 유향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다. 오른쪽에는 도망치는 롯과 그의 딸들이 있고, 그 뒤 언덕 아래에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보인다. 인물들을 가장자리에 작게 배치하고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에 잡아 지옥 불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것 같은 섬뜩함과 극적인 사실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이상의 큰 스케일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과 롯에 베푸는 자비로운 공의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

알브레히트 뒤러 「롯과 그의 딸들」

르네상스 시대 독일의 대표적 화가이자 판화가인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의 작품 「롯과 그의 딸들」은 50cm 정도의 작은 작품으로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원경으로 피난가는 롯과 그의 두 딸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작품에서 특이점은 뒤러의 다른 작품에서 보이는 인물의 사실적이고 세밀한 표현과 달리 풍자적 묘사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존 마틴은 롯과 그의 딸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으로 그렸지만, 뒤러의 그림에선 유유자적하듯 짐까지 챙겨서 걸어가는 세 사람의 모습이다. 게다가 롯은 지팡이에 술통을 걸어 매고 걸어가고 있으며, 단지 그의 옷자락이 펄럭이는 것으로 속도감을 주었을 뿐이다. 그의 딸 중 한 명은 머리

에 붓짐을 지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왼손에 먹을 양식인 닭구이를 꼬챙이에 꿰어 들고 오른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다. 성경의 긴박한 상황과 달리 준비된 피난민의 모습이다. 게다가 딸들의 배가 나와 있어 뒤러의 이러한 풍자적 방식은 롯과 두 딸이 소알에서 나와 산의 동굴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롯의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해 자신들의 후손을 남기고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동침함으로써 큰 딸은 모압족의 선조를, 작은딸은 암몬족의 선조를 낳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아 믿음을 이어간 것과 달리 세속적이고 물질적 세계관을 가졌던 롯의 가계가 대비된다. ♪



알브레히트 뒤러
「롯과 그의 딸들」
1496-1499경.
판넬에 유화,
52.4 X 42.2cm.
미국 워싱턴DC
국립미술관

2025 서울YWCA 특별행사 연극 <젤리피쉬>



서울Y는 2025 특별행사로 연극 <젤리피쉬>를 9월 16일(화), 17일(수) 양일간 명동예술극장에 올렸다. 예술을 통한 나눔을 목표로 1975년 '구두닦기 소년을 위한 자선음악회'로 시작된 서울Y 특별행사 올해의 주제는 '함께 걷는 여성, 그 길 위에 희망이 자랍니다'였다.

연극 <젤리피쉬>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여성 '젤리'의 사랑과 자립 과정을 깊이 있고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특별히 이번 특별행사는 릴렉스드 퍼포먼스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특별행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서울Y는 차이와 경계를 넘어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927 기후정의행진

서울Y 활동가들은 9월 27일 광화문에서 열린 '92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동십자각에서 출발해 역사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한목소리로 '광장을 잇자, 기후정의로!' 구호를 외치며 힘차게 행진했다. 기후정의행진은 생명을 지키고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다. 이날 함께 걸었던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건강한 지구를 향한 작은 실천이 되었길 소망한다.



노원

일자리 매칭데이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9월 9일 북부 권역 5개 센터와 협업해 '2025 서울우먼업 페어' 일자리 매칭데이를 진행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성 일자리 매칭을 강화해 여성 구직자의 자신감 회복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누리봄

따뜻한 동행, 추석이야기

누리봄은 10월 5일과 6일 올해의 홈커밍데이 '누리봄 따뜻한 동행, 추석이야기'를 열었다. 추석을 맞아 '친정, 누리봄'을 찾은 55명의 누리봄 식구는 정성껏 만든 명절 음식을 함께 먹으며 마음을 나눴다. 홈커밍데이의 따뜻한 순간이 누리봄 가족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어려움을 만날 때 넉넉히 이겨낼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시설 모니터링

강남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는 10월 11일 청소년을 위한 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시설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총 24개 구역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안전 상태, 청결도 등 센터 시설 전반을 다각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전체 청결도 평균은 4.3점(5점 만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실 테이블 모서리 보호 캡 설치' 등 청소년의 시각에서 총 12개의 개선 사항이 제안됐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강남 청운위는 시설 평가와 개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센터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했다.

영등포

디지털 시리터러시 강사 양성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10월 15일 (주)코스콤 후원으로 디지털 시 리터러시 강사양성과정을 개강했다. 11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에는 강사 자격이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최종 선발된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후원을 지속하고 있는 (주)코스콤은 이번 과정을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여성 인재가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봉천

찾아가는 마을 행사 '함께라서 괜찮아'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0일, 지난번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행운동 주민을 비롯해 지역주민 200명과 함께 마을행사를 진행했다. 트로트, 가야금 연주, 버블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



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자들은 간식과 추석 명절 선물도 받아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이 어울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위로와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창립 103주년 기념예배



기념예배
말씀선포 천영태 목사(정동제일교회 담임)

성찬모임
찬양사역자 장한이와 함께하는 찬양집회

- 일시 12월 9일(화) 10:00-14:00
- 장소 대강당
- 문의 02-3705-6001, 6007

Blossom the 누리봄

'내가 머문 순간들, 그 안의 빛'
누리봄 가족들의 회복과 희망을 담은
사진 스토리전을 엽니다

- 일시 11월 14일(금) 11:00-18:00
11월 15일(토) 10:00-17:00
- 장소 갤러리 관악(관악구청 본관 2층)

세계YWCA·YMCA 국제친선기도주간 연합예배

- 일시 11월 10일(월) 11:00
- 장소 대강당
- 예배주제 희년, 150년 기도 실천의 여정
- 말씀선포 김지선 목사
(미국 인디애나주 얼햄 종교대학 교수, 미국장로교 목사)
- 문의 02-3705-6001

2025년 기독교시민아카데미 디지털 시대, 정의와 공존을 위한 물음과 답

12월 3-4일 14:00
서울YWCA 1층 마루 & 유튜브 라이브

디지털 전환과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불평등, 폭력, 기후위기의 문제를 함께 성찰합니다. 신앙과 사회운동이 만나는 지점에서 책임 있는 기독교시민의 실천과 공동체적 삶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강_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기독교시민의 사회적 책임
홍중호 교수_ 서울대 환경대학원,
탄소중립·에너지전환·ESG분야 전문가
12월 3일(수) 14:00-16:00

2강_ 불평등 시대, 존엄을 향한 노동 : 기독교시민의 응답
이철승 교수_ 서강대 사회학과
12월 3일(목) 16:00-18:00

3강_ 기술매개 젠더 폭력에 대응하는 기독교시민
김애라 연구원_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월 4일(목) 14:00-16:00

- 문의 02-3705-6034



기독교시민아카데미 신청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북멘토링 프로젝트'의 북멘토가 되어주세요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문의 02-3705-6034

신규 프로그램 안내

영등포 • 문의 02-858-4514(내선1번)

과정명	교육일정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5일 단기)	11월 17일(월)-21일(금) (월-금) 9:30-13:30

노원 •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증(야간)	11월 3일(월)-12월 15일(월) (월·수) 19:00-22:00
떡심화과정 (전통떡·퓨전떡·떡케이크)	11월 8일(토)-1월 17일(토) (토) 14:00-18:00
해외쇼핑몰 입점실무 (이베이·쇼피)	11월 24일(월)-12월 17일(수) (월·수·금) 15:00-18:00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11월 26일(월)-1월 23일(금) (월-금) 9:00-18:00
전산회계 1급 자격증	11월 29일(토)-1월 17일(토) (토) 9:00-18:00

스포츠센터 강습 안내

• 문의 02-3705-6030

발레핏

발레핏은 발레바를 이용한 발레와 필라테스 동작을 바탕으로 골반과 허리, 어깨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바디라인을 되찾아주는 운동입니다

- 강습 안내 주 1회 (총 3타임 운영) : 70,000원
금 17:30-18:20
금 18:30-19:20
금 19:30-20:20

기구(리포머)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바른 자세로의 교정과 재활 등을 목적으로 신체 근력과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 강습 안내 주 2회(월·수, 화·목) : 154,000원
주 1회(금) : 80,000원

*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 스포츠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사)서울YWCA 제6회 정기총회

제104회(제6회 사단법인) 정기총회가 2026년 1월 29일(목)에 열립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감사 결산 사업보고와 함께 2026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채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14:00
- 장소 대강당
- 문의 02-3705-6001, 6007

CALENDAR

2025 11

월 화 수 목 금 토

1
· 다이내믹 청년공론장 13:00

3
4
· 위원회 재정부 11:00
· 실무활동가 양성훈련 13:00

10
· 세계YWCA·YMCA 국제친선기도주간 연합예배 11:00
· 역대이사모임 11:00

11
· 이사회 9:00

12

13
·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14
· Blossom the 누리봄 '내가 머문 순간들, 그 안의 빛'(~15일)

15
·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은하수 정기모임 10:00
· 씽크머니 동문행사 13:00

17
· 위원회 평생체육팀 18:00

18
· 위원회 노원Y 11:00
· 소비자환경팀 11:00
· 시설운영사업팀 11:00
· 청소년팀 11:00
· 홍보출판팀 11:00

19
·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 누리봄Y 14:00

20
· 위원회 여성능력개발팀 11:00
· 영등포Y 11:30

21
· 위원회 강남Y 10:15

22
· 그린Y·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0:00

24
· 위원회 봉천Y 11:00
· 평화아카데미 평화·인권 교육(대신중) 8:25

25
· 위원회 인사 9:30
· 임원 12:00

26

27
· 그린Y 기후위기대응 교육(대신중) 9:20
· 씽크머니 경제·금융 교육(대신중) 9:20

28

29

2025 12

CALENDAR

월 화 수 목 금 토

1

2
· 위원회 재정부 11:00

3
· 기록시민아카데미(4일) 14:00

4

5

6
· 씽크머니 정기모임(20일) 13:00

8

9
· 창립 103주년 기념예배

10

11
· 이사회 10:00
· 누리봄 Thank You Festival

12

13
· 돌봄회원 재교육 산후조리사·아기돌보미 기사돌보미·간병사 14:00
· 그린Y·키다리학교(27일) 정기모임 10: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1:00

15
· 위원회 평생체육팀 18:00

16
· 위원회 노원Y 11:00
· 소비자환경팀 11:00
· 시설운영사업팀 11:00
· 청소년팀 11:00
· 홍보출판팀 11:00
· 회원 감사행사 16:00

17
·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 누리봄Y 14:00

18
· 위원회 여성능력개발팀 11:00
· 영등포Y 11:30

19
· 위원회 강남Y 10:15

20
·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울력 정기모임 10:00

22
· 위원회 봉천Y 11:00

23

24

25
· 성탄절

26

27

29

30
· 위원회 인사 11:00
· 임원 12:00

31

「여성신학 아카데미」 참가 후기

아시아 교회여성의 연대와 신학적 실천

2025 여성신학 아카데미는 ‘아시아와 교회여성’이라는 주제로, 단지 한 지역의 여성신학적 논의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교회와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신앙, 그리고 저항의 언어를 함께 묻는 자리였다. 세 번의 강의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아시아적 시선’과 ‘여성의 몸과 목소리’를 중심에 세웠고, 그 흐름은 이론에서 현장으로, 다시 신학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과정이었다.



이진주
프린스턴신학교 아시아게미국기독교센터 연구원,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회원

1강

아시아 여성학 관점에서의 도전과 과제

최형미 박사(아시아페미니즘 연구자)

최형미 박사는 인도네시아 여성운동 ‘거르와니’의 사례를 통해, 식민주의·국가폭력·가부장제가 교차하는 정치적 공간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억압의 상징이자 저항의 주체로 자리했는지를 조명했다. 늙은 여자, 마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며 국가의 정당성을 위해 희생된 여성들의 이야기는, 단지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을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었다. 아시아 여성학을 서구 페미니즘의 이론 수입이 아니라, 아시아 각 지역의 역사·민족·문화·종교적 맥락 속에서 다시 태어난 사유로 제시했으며, 나아가 ‘차이의 페미니즘’과 ‘초국가적 연대’ 개념을 연결하며, 자신의 몸을 기억하고 말하기 시작한 아시아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신학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강

아시아 교회여성의 실천적 연대

문정은 목사(아시아기독교협의회 회장) &
김혜정 목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먼저 문정은 목사는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의 역사를 통해, 1957년 창립 이래 아시아 교회 특히 교회여성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증언하는 공동체적 삶”이라는 비전을 실천해 왔는지 설명했다. 1980년대 CCA 여성위원회 데스크의 공식 출범은 빈곤·차별·불의의 현실 속에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아시아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여성신학적 실천으로 구체화한 대표 사례였다. 또한 아시아 에큐메니컬 여성 컨퍼런스(AEWC) 등 아시아 여성들이 주도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들이 신학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이동해온 여정을 그려냈다. 이를 ‘시스터후

드’에서 ‘차이 기반 연대’로의 전환이라 요약하며, 차이를 인정하는 연대가 아시아 여성운동의 생명력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김혜정 목사의 강의는 국내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통해 교회여성운동이 마주한 현장의 긴급함을 드러냈다.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들이 겪는 복합 차별(언어, 문화, 법, 경제, 젠더 등)의 교차점을 통계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돌봄노동자, 가사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신앙인으로서의 이주여성들을 교회의 새로운 ‘이웃’으로 바라봐야 하며, 교회가 단순한 자선의 차원을 넘어 폭력과 착취를 심화시키는 제도의 변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주여성쉼터’와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의 사례는, 신앙과 정의가 현장에서 만나 차별과 경계를 넘는 여성신학 실천의 구체적 형상처럼 다가왔다.

3강

아시아와 여성신학적 실천 수립

김혜란 총장(토론토대 임마누엘칼리지 설교학)

마지막으로, 김혜란 총장은 평등·치유·회복을 위한 아시아 여성신학적 실천을 제시했다. 앞선 두 주의 논의를 ‘여성신학 실천의 5가지 지침(상호교차성, 상호의존성, 다름의 인정과 존중, 조상의 지혜 배우기, 성서적 조명)’으로 정리하며, 신학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곧 억압의 다층 구조를 인식하여 성차별·인종차별·계급차별·생태파괴가 서로 얽혀 있음을 통합적으로 봐야 하고, 인간을 서로 기대고 관계 맺는 존재로서 이해해야 하며,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이 생명의 근원임을 배워야 하고, 식민주의가 지운 토착영성과 전통 속 지혜를 회복해야 하며, 성서를 상호교차적 시선으로 다시 읽음으로써 ‘타자와의 연대’를 신앙의 본질로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혐오와 배제 시대를 진단하면서, 평등·정의·인권의 불이 꺼지려는 지금, 교회는 다시 연대의 불을 밝혀야 하며, 여기에 아시아 여성신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여성’으로 신학하기

아시아 여성으로 신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서구 신학의 주변부로 머물렀던 아시아 여성들은 이제 신학의 주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언어는 억압의 경험과 연대의 기억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교회여성’이란 교회를 새롭게 해석하고 변혁의 주체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집합적 이름임을 다시 확인했으며, ‘신학’이란 교회뿐만 아니라 거리, 공장, 쉼터, 국경, 온라인 공간에서도 살아 움직인다는 것 역시 다시 확인했다. 아시아 여성신학은 실천적 신앙이다. 그 신앙은 상호교차적 연대 위에서 있으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적 신앙인 것이다. 나는 이번 아카데미에서의 배움과 성찰을 가지고, 다가오는 11월 CCA의 AEWC에 참가하여, 아시아 여성들과의 더 넓은 에큐메니컬 연대의 자리에서 다시 배우고 나누고자 한다. 서울Y 마루에서 진행된 세 번의 모임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용기를 얻었다. 이 아카데미는 학문과 삶, 신앙과 정의, 개인과 공동체가 교차하는 자리였다. 이후에도 여성신학 아카데미가 아시아 여성들의 지혜와 목소리를 총체적으로 이어주는 살아 있는 신학의 장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Y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 9월

일반 후원



고려옥 고선혜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용관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현경
 김 형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배정미 서영석 서해영 석성옥 송순옥 심영자
 양수경 오준호 우정현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애진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재림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임중현 장민경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수경 정은숙 조순영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서은 최경자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월요까페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복멘토링 후원



구영숙 김민아 김상희 김하나 김선자 김성연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송태연 신여명 심영자 양진화
 예정원 우영숙 이연배 이윤선 이재림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모아 조민형 조연신 최동수 최 불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월요까페 창진

재능 기부



- 최문희(홍보출판팀 위원)
2025년 9·10월 회보 '환경에세이' 칼럼 기고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2025년 9·10월 회보 '미술로 읽는 성경' 칼럼 기고

월 CMS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록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문숙 강민아 강민지 강선경 강성길 강수미 강시현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윤정 강일훈 강주현 강창석
 강하자 강형식 강혜진 강호미 규규연 계속화 고경혜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은경 고은비 고은화
 고재욱 고희애 공명주 공민호 공민희 곽동윤 곽민정
 광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수영 구연미 구오영 구지영
 권경자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성준 권순정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지혜 권태진
 권현준 권형하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종선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원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관옥 김광희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도근 김동은 김동형
 김동화 김라엘 김말녀 김명수 김명희 김문휘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정 김미희 김민선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정 김민지 김배옥 김병수 김병호 김보라
 김보명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덕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자 김선화 김성민 김성민 김성준
 김성혜 김성희 김세진 김소연 김소희 김수연 김수연
 김수현 김순경 김순남 김순임 김순자 김순해 김시은
 김시은 김 신 김애숙 김양선 김에스더 김연경 김연순
 김연희 김영숙 김영심 김영옥 김영혜 김예은 김예은
 김예지 김예지 김오경 김옥민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경 김유미 김유애 김유진 김윤경 김윤나
 김윤전 김윤정 김윤중 김윤지 김윤지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총 김은혜 김익동 김자희
 김재경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남 김정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숙 김정은 김정은
 김정연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준희 김지나 김지민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희 김진숙
 김진숙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채린 김철규 김철민
 김철주 김충현 김태경 김태숙 김태연 김태준 김태한
 김통범 김하영 김하은 김한규 김해정 김향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우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순
 김형순 김형원 김형철 김형태 김혜규 김혜성 김혜양
 김혜진 김화숙 김효숙 김희열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김희진 나미정 나소영 남궁정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남형주 남희숙
 노남례 노병균 노연순 노인화 노현주 노혜환 동지현
 류경아 류다경 류미현 류종현 류 혁 마신웨이 마채은
 마초희 명정신 문경혜 문다영 문미경 문선영 문신환
 문응식 문자영 문종숙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경술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난영 박노영 박대근 박덕규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소 박미영 박미용 박민선 박민호 박병주
 박상수 박상영 박상우 박서호 박선미 박선주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송아 박순예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외정 박용진 박운용 박윤경 박윤슬 박윤애
 박은영 박은정 박은정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지현
 박정숙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주원 박지선 박 진 박진용 박진향 박진화
 박찬인 박채원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선

박현숙 박혜리 박혜수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방윤옥 방윤우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은경 배은주 배은진 배정미 배정연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광옥 백명숙 백선옥 백성희 백옥선
 백운순 백은선 백은엽 백정금 백지우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서경희 서근배 서락원 서명수
 서미화 서민경 서빛나 서숙경 서승범 서옥덕 서원석
 서은경 서정연 서지영 서지영 서해원 서현옥 서혜승
 서혜원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성경란 성대영 성덕화
 성연석 성영환 성윤수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진원
 손근희 손소영 손채린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세실
 송세은 송욱의 송윤주 송윤화 송은아 송이라 송재임
 송중우 송창은 송태연 송혜승 신경아 신동선 신민자
 신상용 신승우 신연식 신용자 신종인 신지숙 신진실
 신찬용 신창미 신총섭 신현경 신현미 신화옥 심경호
 심창섭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운 안영호 안유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준태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혜리 안희란 양다현 양봉규 양세진 양수정 양영화
 양종숙 양진영 양형옥 양현옥 양혜진 엄수길 엄현진
 여명진 염문철 염용희 염은애 오경신 오경아 오미영
 오성아 오소연 오영아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오충민
 오혜동 오혜영 윤기석 왕정애 왕정환 용현중 우수경
 우승현 우재하 우훈희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위정선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승효 유예나 유예목
 유원규 유은경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진아 유현숙 육순연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광미 윤문노 윤방현 윤복례 윤상은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순민 윤장범 윤재숙
 윤재양 윤재혁 윤정향 윤정희 윤지영 윤지완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효석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노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주 이경희
 이경희 이광희 이교신 이규택 이금순 이금재 이금희
 이기쁨 이기화 이남연 이남진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현 이명순 이명우 이명자 이명혜 이민석 이민정
 이법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봉희 이상길
 이상명 이상욱 이상원 이상윤 이상지 이상해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정윤희	정은주	정재현	정재훈	정정애	정종화	정종화
이성자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윤	이수진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징자
이숙용	이순영	이순옥	이순우	이순천	이슬기	이승국	정한얼	정해윤	정현서	정현승	정현아	정현주	정혜경
이승연	이승윤	이승진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조계연	조규성	조규영	조규영
이애신	이연수	이영대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조규원	조규원	조길수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민형
이영숙	이영숙	이영우	이영자	이영준	이영진	이영화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조성환	조성환	조세환
이영희	이예은	이옥경	이용균	이용호	이유경	이유리	조연신	조오영	조용선	조원식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이유림	이유빈	이윤선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조정현	조정현	조정훈	조정희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조한솔	조한준	조형윤	조혜성	조혜전	조홍신	조희수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주동일	주명애	주영민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진가인
이은지	이은혜	이은희	이의곤	이인석	이인성	이임수	진부향	진영선	진재승	차경희	차미연	차하나	채송화
이재건	이재경	이재곤	이재길	이재옥	이재욱	이재정	채재호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혜	최명희	최문정
이재준	이재천	이재혁	이재혁	이정구	이정석	이정석	최문희	최민영	최 볼	최봉수	최새롬	최서래	최성현
이정수	이정숙	이정숙	이정은	이정인	이정한	이정훈	최순자	최순태	최승민	최승아	최승환	최영실	최영주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최운영	최유나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희	최윤희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범	이지선	이지숙	이지아	최은성	최은주	최인숙	최정현	최정호	최종대	최준명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진규	이진선	이창희	이창희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현	최지희	최진숙	최현경
이채진	이태림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나	이항재	이 행	최현주	최혜영	최혜원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이행남	이행자	이한국	이현순	이현미	이현미	이현아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명희
이현옥	이혜미	이혜원	이혜정	이혜주	이혜준	이혜진	한미미	한민희	한성우	한승연	한승우	한승희	한옥연
이호섭	이효정	이희전	이희찬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한완영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 정	한정신	한정은
임병일	임성준	임승훈	임양수	임옥영	임운유	임완철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한혜정	허미란	허선영
임재연	임재영	임정연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준호	허영록	허영숙	허혜정	현은순	홍경화	홍서희	홍선미
임중현	임지연	임지은	임지현	임춘화	임현주	임현희	홍성옥	홍수연	홍승연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명자	장민조	홍주실	홍현표	홍호성	황명숙	황보영	황선미	황어진
장보경	장석귀	장선희	장성호	장세린	장수용	장영옥	황왕연	황용하	황윤희	황지희	황현숙	황홍숙	
장영은	장예선	장용익	장주연	장주현	장지현	장철승	(주)건축사사무소빅 (주)미래공간인디맨 (주)블록컨버전스						
장현주	장화선	장 훈	전경희	전덕기	전민규	전병규	(주)지인에프엔씨 그린에이전시 김진경디자인스튜디오						
전병우	전부영	전부일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지	노무법인 한승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센트럴디자인 솔샘건축						
전오연	전윤숙	전인옥	전재수	전하라	전행욱	전현숙	스튜디오GAGA 씨에라여성의원 이틀리에 더 라엘						
정경문	정경미	정경원	정대필	정동신	정문옥	정미선	아름경희한의원 양재2동어린이집 조명팩토리						
정상미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주식회사 아이통교육 주식회사 아키웍스 주식회사 제이글로리						
정수경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여백	정영룡	주식회사콤마코리아 진한의원 파티인데이블 향기나무						
정영희	정예슬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윤정	정윤희							

짧아진 영상, 깊어진 블랙홀

숏폼 콘텐츠(유튜브 쇼츠)는 짧은 시간에 빠른 만족을 제공한다.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이 주는 즉각적 몰입감은 사용자 의 시청 시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¹⁾에 따르면, 숏폼 앱(유튜브, 틱톡 등)의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은 52시간에 달한다. 이처럼 짧은 영상이 긴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빠르게 주목받고자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 선정적인 이미지(썸네일), 과장된 편집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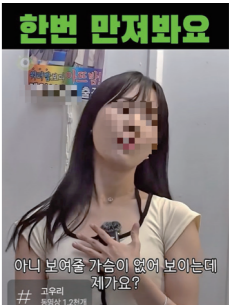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장



서울Y 모니터링에 따르면, 1,680개 쇼츠 가운데 영상 내용에서 확인된 성차별적 사례는 156건이었으며, 성별 고정관념 강화(42.9%)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배달 진상의 8~90%는 여자라고 단언하며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거나, 여성의 발화나 행동을 '여자어'라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례들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위험을 초래했다.

성적 암시 표현과 관음적 시선

또한, 영상 구도에서 확인된 성차별 사례는 146건으로, 이 중에선 성적대상화(4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쇼츠에서는 여성 출연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카메라 구도를 통해 시청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또 다른 쇼츠에서는 '여자 뒤에 처음 탄 남자' '한번 만져봐요' 등과 같은 성적 암시 표현의 제목을 사용하기도 했다.



숏폼 콘텐츠의 산업적 확장

숏폼은 이제 세로형 영상과 짧은 길이라는 새로운 실험의 단계를 넘어, 현대 미디어 소비의 표준이자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주 이용세대인 MZ세대는 '숏폼' '숏드' '숏송'²⁾ 등 정보, 오락, 쇼핑의 거의 모든 행위를 짧고 강렬한 콘텐츠로 경험하고 있다. 특히, 숏폼 커머스(숏폼)가 매력적인 이유는 짧게 보고 빨리 산다는 속도감에 있다. 이러한 산업적 확장은 숏폼이 단순히 표현 수단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지닌 미디어 권력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성인지 관점의 감시와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다. 숏폼의 제작·유통·소비 구조가 상업적 논리와 알고리즘 중심으로 고착될수록, 자극적 코드와 성차별적 표현이 클릭 수와 매출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각한 중독 수준의 무한 추천 구조를 지양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와 책임성 강화, 제작 단계에서의 윤리 기준 정립, 그리고 이용자의 비판적 수용 역량 확대가 필수적이다. ♪

정리_서정인 여성운동팀 활동가

모니터링 대상	2025년 4월 15일-7월 15일 유튜브 내 인기 쇼츠 1,680개
모니터링 기간	2025년 7월 15일-7월 30일

1)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2024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2024.12.30.)
2) 숏폼: 약 1분 미만의 길이가 짧은 형태의 영상 콘텐츠인 숏폼을 활용한 쇼핑 형태 / 숏드: 드라마 각 회차의 하이라이트만 모아 편집한 드라마 영상 / 숏송: 기존 노래를 n배속하거나 클라이막스 부분만 편집한 노래 영상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08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들 모이면

최근 서울 ADEX 2025에 갔다가 하늘을 가르며 비행하는 항공기를 봤다. 지상 가까이서 전투기가 날아다녀서 귀가 터질 듯 엔진 소리가 거대했다. 에어쇼 자체는 짧았지만 서울공항 곳곳에 전시된 전투기, 무기. 또 상공에서 들리는 비행 소음을 들으니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풍경이 일상적이겠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다. 어린아이들은 함께 온 부모님의 손을 잡고 환호하며 전투기를 구경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우리나라가 여전히 분단 상태이며 휴전 국가라는 것이 떠올랐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전쟁 때 희생된 군인들 덕분이며, 지금까지도 국방을 수호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값을 치르는 것은 일반 국민 모두에 해당한다.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지만 장기적으로 치르는 값이 너무나 비싼 것이다. 평화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무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사상자 수도 점점 늘어간다. 뉴스를 들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만 싸움을 멈추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비치지 않는다. SNS에 접속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폭등한 물가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후원을 받는 계정이 여럿 보이고 실제로 연락도 많이 받았다. 그들은 폭격을 피해 대피소에서 생활하면서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식을 외부에 알리고자 했다.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도 탄압을 피해 SNS를 활발히 사용하며 전쟁에 휘말린 일반인들의 사진과 파괴당한 건물들을 찍어서 업로드하며 하루 하루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이걸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도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다. 최근 휴전 협상이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공습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의미한 전쟁 앞에 스러져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은 이권 싸움에 휘말린 죄 없는 사람들이다. 1, 2차 세계 대전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맺은 평화 협정이 무색하게도 세계에선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에어쇼에서 들은 전투기 소음이 어느 나라에 있는 내 또래 청년에게는 목숨의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휴전 협정이 채택되길 소망하면서 아이들이 평화로운 하늘 아래 학교에서 평범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청년 한 명이 세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들 모이면 이는 곧 다수 의견이 되고, 이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평화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청년들이 현재 있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긴 어려울지라도 평화를 의논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비전을 찾을 수도 있다. 또한 청년들이 전쟁과 평화에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구 곳곳에서 빛는 갈등이 하나라도 해소되길 바란다. **♣ 글_변하연**



서울Y를 대표하여 수상한 조연신 회장(왼쪽부터 다섯번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위원회 1000회 기념' 감사패 수상

서울Y는 9월 1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위원회 1000회 기념'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속적인 윤리위원 추천을 통해 언론윤리 확립과 자율심의 발전에 기여한 서울Y의 공로를 기리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회원 소식

송길레 역대이사

월간「문예사조」2025년 8월호
'이달의 수필가' 선정
수필 <용인의 '괴테카페'> 기고

민병옥 명예이사

10월 15일(수)~21일(화)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인전 <민병옥展> 개최

조연신 회장

10월 21일(화)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 감사장 수상

윤희경 여성능력개발팀 간사

딸 염지수 씨
11월 22일(토) 낮 3:50
스타시티아트홀(서울 광진구)에서 결혼

후원 감사합니다

2025 특별행사

강성임	경규연	고경란	고선혜
김덕신	김선덕	김선자	김선희
김양선	김영란	김은자	김진숙
김현주	김 형	남연정	민병옥
민홍숙	박민선	박숙자	박위자
박유라	박인선	박정희	배은경
배정미	백옥선	송길레	송세실
신현미	우영숙	윤경진	윤선영
이경연	이경희	이복희	이선희
이숙현	이순우	이연배	이영옥
이원희	이유림	이윤선	이은주
이주영	이지연	이지은	이행자
이홍자	이희전	임지은	임혜원
장영옥	장윤아	전영지	전현숙
정문옥	정선덕	정수경	정영룡
정영숙	정유경	제혜자	조연신
조종남	조혜진	주현영	지복임
차귀숙	차미연	최명희	최 봄
최성애	최재숙	최한나	최화순
한미미	한혜영	허미란	홍은주
홍정현			

CJ 온스타일	강남청소년센터위원회
고려용접봉(주)	국제협력위원회
고려제강(주)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위원회
삼성전자(주)	누리봄위원회
씨제이제일제당(주)	명예위원모임
알비레오	봉천종합사회복지관위원회
(주)에치와이	소비자·환경위원회
(주)엘지생활건강	시설운영·사업위원회
(주)원동투자그룹	여성능력개발위원회
(주)코링텍	역대이사모임
(주)하나은행	홍보출판위원회
(사)한국YWCA연합회	회원활동위원회

후원 감사합니다

2025 생명살림 바자회

김초자	명예위원모임	(주)씨제이이엔엠	광동제약(주)	씨제이제일제당(주)
박민선	시설운영·사업위원회	(주)아모레퍼시픽	농협은행 명동지점	엘지전자(주)
박소현	역대이사모임	(주)에스씨케이컴퍼니	더스킨 화장품	월드유니텍(주)
박위자	재정위원회	(주)에치와이	동서식품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
스토니강		(주)엔에스쇼핑	라뽀엘	주식회사 웰코스
이명순	(주)농심	(주)엘지생활건강	마더네이처	코웨이(주)
이복희	(주)다날에프엔비	(주)오뚜기	매일유업(주)	콤마와인
이지은	(Dal.komm Coffee)	(주)지에스리테일	삼성전자(주)	해태제과
	(주)더씨네파트너스	(주)풀무원	서도비엔아이(주)	
	(주)빙그레	공차 상암DM점	서울우유협동조합	

아트팜엘케이, 오페라 <칼레아 부탈소로 KALEA BUTALSORO>

국제클래식음악상·칼라이네케국제경쟁음악상·쌍상스국제음악상 수상
한국 오페라 앨범 최초로 미국 그래미어워드 공식 출품

따뜻한나무장학회 회원인 김재청님(연출가)이 속한 아트팜엘케이가 창작한 오페라 <칼레아 부탈소로>가 다양한 음악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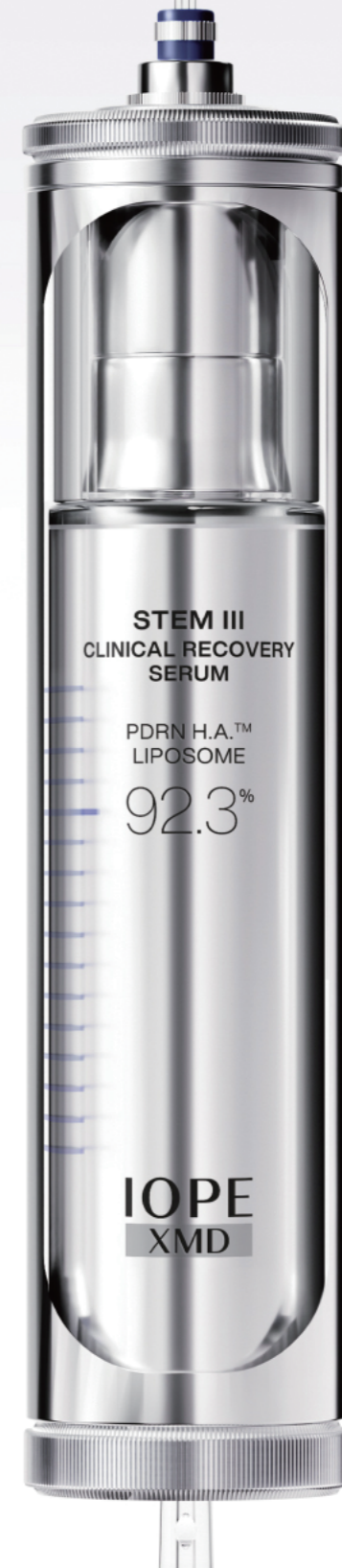
국제클래식음악상(오페라·오페라 뮤직 비디오), 칼라이네케국제경쟁음악상(작품상·작곡상), 쌍상스국제경쟁음악상(지휘상·오케스트라상), AOA국제예술상(작곡상), 한국포브스 공연 예술 브랜드대상을 연속해서 수상했다. 최근에는 한국 클래식 오페라 앨범 최초로 미국 그래미어워드에 최근 공식 출품되었다.

오페라 <칼레아 부탈소로>는 기후 변화와 인류의 미래를 다룬 SF 오페라로, 미래 인류 최후의 보루인 플로팅 시티 '부탈소로'에 이민을 오는 여러 민족의 모습을 신화적 관점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지난 2월 28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세계 초연됐다.

* 따뜻한나무장학회는 서울Y 청년해외봉사단을 통해 만난 청년들이 사회원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Y 청소년, 청년, 동아리에 장학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최초의¹⁾
피부과 관리²⁾
비교



XMD STEM III
CLINICAL RECOVERY SERUM
검증된
물광플러핑³⁾



1) 자사 최초 2) 건강한 피부의 피부관리를 의미 3) 보습에 의한 피부 물광 부스팅 효과를 의미함

NEW 아이오페 XMD 스템3 클리니컬 리커버리 세럼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마트 아모레퍼시픽 매장

뜨거워지는 지구, 빙하소실의 두려움

글_ 최문희 홍보출판팀 위원



아마도 1990년대쯤으로 기억한다. '얼음나라'라는 낭만적 이름의 북극에서, 해빙(海氷) 조각 위에 고립되어 떠 있던 북극곰의 슬픈 눈을 뉴스화면에서 마주했던 일이, 그때만 해도 '지구온난화'라는 부드러운 말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걱정했고, '북극곰 살리기 운동'이 환경단체의 슬로건이었다. 이후 '기후변화'라는 포괄적 표현을 거쳐, '기후위기'와 '극한 기후'라는 다급함으로 상황이 변했다. 환경 캠페인도 '다 함께 막거나 다 같이 죽거나'로 심각해졌다.

극단적 기후 현상과 지구온도 상승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 중의 하나는 빙하의 녹아내리는 모습일 것이다. 남·북극의 거대한 빙벽이 마치 예리한 칼날에 베인 듯 푸른 속살을 드러내며 엄청난 물보라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빙하는 그냥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지구표면에 닿는 태양열을 반사하고 바닷물 증발을 방지해주는데, 빙하소실은 햇빛의 반사량을 줄여 지구온도를 더 쉽게 높인다. 극지방의 기온상승은 적도지역과의 기온 차를 좁히면서, 지구의 대기 순환 능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기후이변을 야기한다. 다음으로 바닷물의 작용에도 영향을 준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는 적도가 극지방보다 많은데 해양운동이 이를 조절한다. 그런데 담수로 된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져서 해수순환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고 해류도 약화된다. 바다의 열을 수송하는 해류의 힘이 약해지면 결국 급격한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는데 바닷물의 수위 상승이다. 일부 섬 지역이나 해안도시가 물에 잠기는 피해는 이미 알려졌다. 게다가 높아지는 수온도 바닷물의 팽창을 유도하여 해수면 상승을 부추긴다. 자연의 상호연결 사슬이 이리도 치밀하게 짜여있다니 새삼 놀란다. 자꾸만 헝클어지고 있는 치밀함을 원래의 조화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지

그래서 더욱 걱정된다. 빙하소실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은, 영구동토층이 붕괴되면서 냉동상태로 봉인되어 있던 병원균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병원균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나온다. 또한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한 온실가스 발생인자인 메탄가스의 유출도 폐해로 꼽힌다. 최근에는 40년 동안 남극 바다를 떠돌며 세계최대 빙산으로 불리던, 서울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메가버그(megaberg)'라는 별명의 거대 빙산이 이미 절반 이상 녹았고, 몇 주 내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북극의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의 터널입구가 녹아내린 빙하로 인해 침수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국제종자저장고는 미래인류의 생존을 위해 전 세계의 위탁 식물종자 6만여 종, 110만 개를 보관하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중요한 시설이다. 문제는 바다뿐만 아니라 높은 산의 만년설과 빙하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에서는 빙하가 녹아 약해진 지반 탓에 산사태가 일어나 산자락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는 비극도 일어났다.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풍광 앞에서, 여름스키 대신 '빙하관광'이라는 새로운 볼거리의 등장을 소개하는 화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빙하를 보기 위해 모두들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슬픈 언급이 덧붙여졌다. 먼 미래의 일이겠거니 하며 눈감으려 했던 일들이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니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제는 한시도 머뭇거릴 틈이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들린다. 급기야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에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자살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했다. 기후위기가 체감되는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를 겪으며 마음이 답답해진다. 알라딘의 램프 같은 과학기술의 쾌거를 기대하는 간절함이 점점 커진다. ♪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 피부 탄력 피로도 12시간 후에도 3.5% 개선 상태 유지. 시험기간 : 2019.10.17~2019.10.18 / 시험대상 : 만 20~59세 여성 20명 / 시험기관 : 글로벌의학연구소



마벨 R. 겐소

Mabel Rittgers Genso,
김매불

서울Y 조직을 도운 선교사
1882-1957

마벨 릿거즈 겐소 선생은 1882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출생했다. 1902년 아이오와주 디모인 하일랜드 사범대학 졸업 후 초·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1907년부터 2년간은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수학했다.

1908년 11월 미국북장로회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선생은 정신여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1910년에는 교장으로 일했다.

서울Y 창립 당시, 유각경 선생의 은사로서

아직 Y를 잘 모르는 지도자들을 도와 서울Y 조직에 힘써 주었고, 조직 후에도 자신의 집을 회의실로 개방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본회를 육성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동료였던 존 F. 겐소 선교사와 결혼해 '겐소 부인'으로도 불린 선생은 안동교회 유치원 설립, 여전도회, 여성성경연구반 등을 펼치며 서울에서 선교활동에 매진했다. 1941년에는 만국부인기도회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강제추방 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5년 뒤 한국을 다시 찾았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다시 떠나야만 했던 선생은 1954년 다시 한국을 찾아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했다.

노환으로 1956년 귀국한 선생은 1957년 6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소천했다.

마벨 R. 겐소 선생을 기리며 같은 해 9월 정신여자중고교 강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됐으며, 겐소 부부 선교사 묘지가 양화진에 안장됐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 중인 마벨 R. 겐소 선교사 (1956년)
©미국 프린스턴신학교 도서관 Moffett Korea Collection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필라테스·피트니스 3705-6030
서울돌봄과살림 가사돌봄·산후조리사·아기돌봄 3705-6013~4
간병사 3705-6071~2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ydp.seoulwomanup.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년센터 www.gangnamyc.or.kr 544-9725~6